

제6호

2013. 09. 01.

골프꿈나무 소식



강전항 회장의 시타 장면(유성CC)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

서로의 숲이 되고 산이 되어

“히말라야 정상에 희박한 공기 속에서도
편히 숨 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는 말이 자꾸 떠올라 걱정이 앞서지만,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이 최상의 행복을 맛볼 수 있으며
큰 꿈일수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원동력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명품을 부러워하기보다 세계무대를 발판 삼아
스스로의 삶이 명품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밑거름을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빠르게’가 아닌
‘바르게’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음을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꿈은 욕심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보다 중요한 요소인 까닭입니다.

불을 꺼야 별도 밝게 보이듯
자기의 분수를 알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모두가 고루 평안하며
뜻밖의 행운(serendipity)이란 것도
노력한 자에게 주어지는 신의 선물임을 명심하도록 일러주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한 움큼이라도 내 속에 담지 않으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고,
배움 없이 삶을 가꾸기란 불가능하며
공생의 기쁨을 더불어 누리려 할 때 비로소
삶 또한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음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건
꽃을 찾아 달려드는 나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몸 위에 투명한 마음을 입고 서로를 배려하는 분들이 많아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십 미터 뻗어나간 뿌리가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게 해주고, 울곧은
성장을 보장해주듯 그간 다져온 탄탄한 조직력에 힘입어 우리 연맹도
날로 발전을 거듭해야겠습니다. 골프 꿈나무들의 명실상부한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숲이 되고 산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 회장 **강 전 항**

1. 2013년도 전반기 3개의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 「제10회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회장배 전국학생골프대회」 성공적 개최

- 기간 : 2013. 5. 14(화).~ 15(수).

- 장소 : 보성컨트리클럽

우리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전라남도과 대한골프협회, 보성군, 보성컨트리클럽이 후원한 제10회 회장배대회가 녹차의 본고장인 보성에서 169명의 선수와 그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년도 첫 대회를 마쳤습니다.

골프 인구의 저변확대 및 꿈나무 선수들의 골프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데 결정적 산 교육장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은 물론입니다.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님과 최상의 골프장에서 원활한 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보성CC 김태영 사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볼빅, 에듀박스, 크리스탈 퍼터, 포카리스웨트, 볼딘, 해슬리, 골프 에니스틱 등의 협찬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상자 명단

항룡부(고학년, 남) : 김민규(67,67), 권민욱(66,69), 송태훈(72,73)

불새부(고학년, 여) : 조혜림(66,71), 권서연(70,75), 이제영(74,73)

기린부(저학년, 남) : 하지민(75,75), 김영우(79,75), 범채원(75,80)

칭학부(저학년, 여) : 이주연(77,77), 윤민아(78,76), 박혜준(80,82)



2) 「제1회 ONOFF배 MBN꿈나무 골프선수권대회」 성료

-기간 : 2013. 6. 11(화). ~ 12(수).

-장소 : 롯데스카이힐 부어컨트리클럽

MBN과 본 연맹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제1회 ONOFF배 MBN꿈나무 골프선수권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온화하고 섬세한 백제문화가 물씬 느끼며 코스를 즐기는 대회였습니다. 둘째 날, 고르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176명의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내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J Golf를 통해 3번에 걸친 녹화 방송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탁구선수로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예리사 의원이 시상식에 참석해 어린 선수들에게 명약이 될 만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골프꿈나무 육성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대회인 만큼 그 취지가 변치 않고 오래 지속되기를 염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상자 명단 -

항룡부(고학년, 남) : 박지원(72,74), 임성목(73,74), 김민규(72,75)

불새부(고학년, 여) : 이세영(73,72), 신다인(76,70), 서어진(75,72)

기린부(저학년, 남) : 범채원(77,75), 하지민(76,77), 윤성필(79,77)

청학부(저학년, 여) : 윤민아(78,70), 이예원(78,80), 이주연(78,82)



3) 「제7회 녹색드림배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 성황리에 마쳐

-기간 : 2013. 7. 16(화). ~ 17(수).

-장소 : 파인힐스CC(순천 소재)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우리연맹이 주관한 「제7회 녹색드림배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가 생태관광의 도시 순천에서 166명의 전국 남·여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해가 거듭 될수록 참여 선수들의 매너가 좋아지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과 더불어 기량 또한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동초의 김민규(6학년)는 10 언더 파의 기록으로 회장배(10 언더 파)에 이어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대회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라남도가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7년 전부터 주최해왔습니다.

대한골프협회가 후원하고 볼빅, 에듀박스, 크리스탈 퍼터, 포카리 스웨트, 볼딘, 해슬리, 골프 에니스틱, 퍼티스트 등이 협찬하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최적의 스포츠 인프라를 갖춘 골프메카로 인정받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박준영 지사님과 스포츠산업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도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자 명단 -

항룡부(고학년, 남) : 김민규(66,68), 박지원(71,68), 장유빈(72,70)

불새부(고학년, 여) : 이제영(70,69), 서어진(71,70), 정시우(71,73)

기린부(저학년, 남) : 김영우(76,77), 이준우(76,78), 범채원(76,78)

청학부(저학년, 여) : 이주연(75,67), 윤민아(75,73), 박태희(80,78)



- 4) 「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 성황리에 마쳐
 -기간 : 2013. 8. 13(화). ~ 14(수).
 -장소 : 탑블리스CC(안동시 소재)

안동시와 우리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우리연맹과 안동시체육회가 공동 주관한 「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에서 181명의 전국 남·여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유일한 장관배 대회로 7회째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부터 안동시와 공동으로 주최해 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회였습니다. 인천남동의 김가영(5학년)은 8 언더 파의 기록으로 6학년 언니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학년 때 3번의 우승을 거둔 저력에 이어 지난 3번의 대회에서도 줄곧 5~6권을 벗어나지 않다가 드디어 우승을 거머쥔 것이기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SBS Golf를 통해 4번에 걸친 녹화 방송도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골프협회가 후원하고 볼빅, 에듀박스, 포카리 스웨트, 볼딘, 해슬리, 크리스탈 퍼터, 퍼티스트 등이 협찬하였습니다.

안동시가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골프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권영세 시장님과 스포츠산업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도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자 명단 -

- 항룡부(고학년, 남) : 박지원(73,65), 박효승(72,70), 조우영(71,71)
 불새부(고학년, 여) : 김가영(68,68), 이제영(71,68), 정시우(73,70)
 기린부(저학년, 남) : 송근형(75,75), 이육열(75,76), 하지민(76,76)
 청학부(저학년, 여) : 윤민아(75,73), 정주리(75,75), 이예원(79,76)



2. 초등골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1). 초등학생 골프교실 4회.
- 2) 학부모 교육 2회.
- 3) 캐디 교육 3회.
- 4) 경기위원 국내(2회) 및 해외(1회) 연수

3. 2013년도 제1차 이사 겸 임원 연석회의가 3월 26일 서초로알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이사 및 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의 의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1). 2012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 2) 201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 3) 임원 개선에 관한 협의

4. 2013년도 정기 대의원총회가 4월 4일, 서초로알플라자에서 임원 6명과 대의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 1). 2012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 2) 201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 3) 10년사 발간 및 기념행사에 관한 협의
- 4) 임원 개선

2, 3대 회장으로 연맹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군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본 연맹 창단의 주역이며 줄곧 연맹 살림을 도맡아 해오던 강전항 수석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4년간의 임기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맹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개선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대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 임원 현황

○ 개선 후 임원 수 : 23명(회장 1, 부회장 5, 이사 15, 감사 2)

번호	직 위	성 명	직장 및 직위	비 고
1	회 장	강전항	전 서울방이초등학교 교장	
2	부회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3	"	이용부	남부대학교 교수	
4	"	박춘구	(주) 애듀박스 회장	
5	"	이승원	전 서울치현초등학교 교장	
6	"	경은호	서울증산초등학교 교장	
7	전무이사	권청원	KPGA 정회원	
8	이 사	고성휴	전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9	"	김진수	군포 궁내초등학교 교장	
10	"	문경조	전 순천북초등학교 교장	
11	"	송계숙	성동초등학교(서울) 교사	
12	"	서창현	고양한내초등학교 교장	
13	"	윤상희	한국유네스코강원도협회 회장	
14	"	윤석명	서울도봉초등학교 교장	
15	"	이복수	전 진주금성초등학교 교장	
16	"	이신성	전 이천아미초등학교 교장	
17	"	이희연	용인서원초등학교 교장	
18	"	정경현	성남희망대초등학교 교사	
19	"	정임숙	서울구의초등학교 교장	
20	"	진병석	서울신용산초등학교 교감	
21	"	홍승표	청소년리더십센터 소장	
1	감 사	정해철	전 서울대모초등학교 교장	
2	"	조용두	조용두세무회계사무소 운영	

○ 위촉 임원

번호	직 위	성 명	직장 및 직위	비 고
1	명예회장	이군현	국회의원	
2	고 문	김영완	전 서울군자초등학교 교장	
3	"	최재권	전 서울석촌초등학교 교장	
4	"	장달영	(유)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	
5	후원회장	이상용	방송인(뽀빠이)	
6	자문위원	이정섭	전 수원곡선초등학교 교장	
7	지도위원	이영구	USGTF 정회원	
8	교육위원	박금숙	중원대학교 교수(KLPGA 정회원)	
9	"	윤성범	윤성범스타일링골프 원장	

5. 회원 동정

- 이군현 명예회장님



1) 지난 6월 3일, 국회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8월 21일 국회의사당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갖고 2012년도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계십니다.

2) 이에 앞선 13일, 통영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적조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어민들과 적조방제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 이상용 후원회장

충청대학 스포츠외교학과 겸임교수로도 출강하고 있으며 어르신들께서 즐겨 보시는 '뽀빠이와 함께하는 늘 푸른 인생' 등 10년 넘는 장수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주최하는 제26회 시민행복 특별 강좌(6월 26일)에서 '웃으며 사는 여유 있는 세상'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특유의 입담과 인상적인 강연 솜씨로 큰 호응을 얻으며 정읍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긍정적 마인드 함양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닥터의 승부 60회'에 출연해 "밥은 걸러도 운동은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다."며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 장달영 고문



1) 지난 4월 18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음악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습니다.

음원가격 정상화 논쟁을 음악 창작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전환해 우리나라 음악창작자들이 열악한 처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음악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보자는 취지로 열린 토론회였습니다.

2) '미디어 오늘'지 <장달영의 LAW&S>에 "스타는 사람이지만 영웅이 아님"을 적시하며 자유의 남용 및 과용에 대해서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 안양옥 부회장



1) 6월 20일, 서초구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5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안 회장은 취임식에 앞서 오전 11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이 개악 교육자치법을 계속 방치해 정치인의 교육감 진출을 노골화 할 경우 범교육계가 힘을 모아 교육자 후보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는 "이대로라면 내년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과 교육의원제가 폐지돼 정치인 교육감들의 진출이 노골화되고 시도의회 교육상임위가 일반 의원으로만 채워져 교육자치는 말살된다"고 비판하며 "올 정기국회에서 교육자치법을 반드시 개정해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과 교육의원제가 존속돼야 하고, 대학교원처럼 유치중등교원들도 현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교육의원 등에 출마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사가 수능 선택과목이 되면서 한국사 선택 비율이 6.9%에 불과하고 고교 1학년 때 몰아 배우고 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정균 자문위원



세종시 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의 구심점은 학생들이 되어야 하며 그 어떤 것도 상위 개념이 될 수 없다” 강조하며 ‘1교 1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실천 위주의 활동을 전개해 교육계의 귀감이 되고, 학부모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었는데 지난 8월 27일 23:00 과로로 입원 중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는 8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장(葬)으로 엄숙히 거행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윤상희 이사

작년 10월 20일, 춘천 라데나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 도민 시니어 골프대회에서 70타(-2)의 기록으로 우승과 함께 에이지 샷의 영광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테니스 마니아이기도 한 윤 이사는 작년 10월 9일 서울 올림픽 코트에서 개최된 코리아오픈 아시아 시니어 테니스대회 우승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11월 15일) 아시아 시니어대회에서도 우승함으로써 골프는 물론 테니스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6. 2013년도 전반기 CMS 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8월 1일 현재 209명의 회원께서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삼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이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전반기 신규 회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석, 김명희, 김승렬, 김희숙, 오승균, 최귀선, 허옥구, 홍정표, 강승희, 김복희, 김상수, 김정수, 김희숙, 박성래, 박형일, 유영숙, 이현주, 한옥자,
--

※ CMS후원회 회원 가입 안내

CMS후원회란?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과 모든 전산시스템을 상호 접속시켜, 이용기관의 주거래은행 한군데만 거래하여도 고객이 이용하는 모든 은행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여 주는 서비스가 CMS제도입니다.

우리연맹은 후원회원님들이 연맹에 후원하시고자 할 때 은행에 가지거나 폰뱅킹 등 번거움을 덜어드리고 편리하게 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CMS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CMS 출금이체 동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금융결제원과 우리연맹이 관리하므로 정보가 누출되지 않습니다.

우리연맹 CMS후원회에 보내주신 회비는 초등학교골프연맹 발전을 위하여 소중히 사용되며 후원회원님들께는 우리연맹 주관 연수 참여, 연맹소식 통보, 경기위원 봉사 등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 골프꿈나무를 키우는 일에 귀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 한 방울의 땀도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듯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꽃 한 송이 보내는 마음으로 본인은 물론 주위 친지들과 동료, 지인들에게 가입을 권장하여 골프꿈나무 육성에 동참해 주시면 고마움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 후원회원 가입방법

- 연맹 홈페이지 내 CMS에 회원가입 후 연맹으로 확인 전화
- 연맹으로 전화(02-3414-0551)하여 후원회 신청서를 받아 소정 란에 기재 후 제출